

與 잠룡들 총선 공동선대위원장 나서나

이낙연·김부겸·김영춘 등 권역 상징 인사 위촉 검토
원 팀으로 시너지 동력 기대...이 총리 후임 찾기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 대책위원회의 조기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각 권역을 상징하는 당내 잠룡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당으로 복귀할 경우, 힘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6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대위가 출범하면 각 권역을 상징하는 대표주자들이 장차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을 각

각 대표하는 김부겸·김영춘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고려하고 있다. 호남 출신의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이 같은 공동선대위원장 구상은 당이 분열 없이 ‘원 팀’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차기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주자들이 총선 승리를 위해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이며 함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 총리의 경우 이미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운 데다 유력 대선주자인 만

큼 내년 총선 전에 당으로 복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는 점에서 여의도 조기 복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 총리는 오는 18일 민주당 당직자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 식사를 함께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올해 내에 당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후임자를 찾을 수 있을지가 남은 ‘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총선거획단 위원인 금태섭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 총리에 대해 “정치도 잘하시고 당을 위해 서도 많은 기여를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당에 저를 포함해 다들 당이 어려울 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찬 대표도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총리가 차기 대선주자로 지명도가 높아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당원이 있다”며 “이 총리의 의향뿐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 가능성과 함께 통일부 장관 기용설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와 당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의 관건은 결국 단합과 혁신, 쇄신”이라며 “공동선대위원장 카드는 민주당이 원 팀으로 움직이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상당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日 정부 “문화상 의장 제안 거절”

<1+1+국민성금>

NHK 보도

방일 중인 문화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한 ‘1+1+국민성금(α)’ 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측은 “이러한 내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NHK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종료가 오는 23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한일 관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 측의 대응을 지켜볼 자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자민당 내에서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단시간 말을 주고받을 때 징용문제에 대해 일본 측이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측은 “이러한 내용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NHK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종료가 오는 23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에 한일 관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 측의 대응을 지켜볼 자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교안 “보수통합기구 구성하자”

“유승민과 소통해 와”

자유한국당 향교안 대표가 6일 “자유우파의 모든 뜻있는 분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보수통합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변혁)을 대표하는 유승민 의원, 그리고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과도 작·간접적 논의와 소통을 해왔다면서 이들과 함께 ‘보수 빅텐트’를 치겠다고 공언했다.

력의 가치와 노선, 통합의 방식과 일정 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물밑에서 하던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과점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영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당내 통합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유승민 대표와도 작·간접적 소통을 해왔다”며 “앞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공화당과도 논의들을 나눈 바가 있다”고 소개했다. 황 대표는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조기 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강신업 변호사 영입

바른미래 대변인 임명...“조만간 총선거획단 구성”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가 정상화된 만큼 총선을 위해 총선거획단 구성 문제, 인재영입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는 그간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의 회의 보이콧, 문병호 전 최고위원의 탈당 등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파행을 겪어왔으나, 이날 김관영·주승용 최고위원의 참석으로 정상화됐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제3지대를 더욱 확대해 총선에서 승리하고 한국 정치구조를 바꿔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젊은 인재, 여성 인재, 사회적 약자 등을 영입해 우리 당의 기초를 보강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공식이던 대변인에 강신업 변호사를 임명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강 대변인을 ‘1호 영입 인사’라고 소개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 민주당 입당원서 제출

무소속 손금주(나주·화순) 국회의원이 6일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나주, 화순 지역구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받들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자

한다”며 “미력하나마 2020년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힘을 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개인보다는 정당이 움직여야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중근·김구 선생 기념관 등 전범기업 업체가 보안업무”

송갑석 의원, 부적절 지적

안중근의사 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백범김구 기념관 등이 전범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에스원과 보안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항일 독립운동의 상징인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백범 김구 기념관,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을 전범기업과 관련된 업체가 지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직접 나서서 동안 순국선열의 열이 깃든 현충시설의 보안을 전범기업 관련 회사가 지켜왔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유감스럽다”며 “국가보훈처는 특히 민감하고 세심한 행정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지난해와 올해 초 ‘충렬사’ 등 현충시설의 에스원과의 보안서비스 계약 3건을 해지했고, 경북 청도 교육지원청은 청도 ‘3.18 독립운동기념관’의 보안서비스 중도계약 해지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도 대구, 포항, 문경 등 지자체에서도 관할 현충시설의 보안을 담당하는 해당 보안업체와 계약 중도해지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다.

한편, 에스원의 최대주주는 자본 25.65%(2018년 12월 31일 기준)를 보유한일본SECOM이며,일본SECOM의 최대주주는 자본 14.41%(2019년 3월 31일 기준)를 보유한 Master Trust 은 행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일하는 국회 위해 다음주 혁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서 현장최고위...“20대 국회 최악 평가 野 발목잡기 때문”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안보 상황 인식과 강기정 정부수석의 답변 태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정국회화가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6일 열릴 예정이었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가 무산됐고, 여야의 패스트트랙 협상도 중단된 상태여서 정국회화 전체가 ‘올스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국민으로부터 받는 이유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일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 의지를 다지며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거쳐 22개 정도의 국회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분회와-상임위 자동 개최 ▲의사일정 및 안건결정 자동화 ▲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및 국회 파행 정당에 불이익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국감 파행을 초래한 강 수석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회 출임금지’를 요구했다. 한국당의 이런 입장에 따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예결위는 파행했다. 예결위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됐던 이날 회의를 8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강기정 청와대 정부수석은 이날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태도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얘기에 끼여든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차 국회를 찾은 강 수석은 이날 본인 출석 문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오전 회의가 무산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필요하면 백번 사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수석은 예결위 연기에 대해서는 “금요일 소린 것은 피감기관 중인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이걸 핑계로 국회가 또 공전하면 어떡하나,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광주 남구 주월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306㎡(64.61평) 건물 : 494.4㎡(149.56평)
지상4층 매매가 9억3천만원 삼목고 인근 푸른길도서관 앞 공실없음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공 장 광주 광산구 고룡동 토지 : 1705.3㎡(515.9평) 건물 : 1358.46㎡(410.9평)

주 택 광주 북구 장등동 41번지 토지 : 598㎡(180.9평) 건물 : 263.04㎡(79.6평)
지상3층 감정가 4억7천8백만원 최저가 3억3천5백만원

근린주택 광주 북구 두암동 894-8번지 토지 : 150.3㎡(45.5평) 건물 : 318.9㎡(96.5평)
지상3층 감정가 3억5천8백만원 최저가 3억5천8백만원

근린주택 광주 광산구 우산동 1065-4 토지 : 1131.8㎡(342.4평) 건물 : 894.38㎡(270.5평)
1층 제조업소,물류창고 2층주택 감정가 1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13억2천1백만원

아 파트 광주 북구 용봉동 상용예가 54평형 감정가 5억6천만원 최저가 3억9천2백만원

아 파트 광주 광산구 장덕동 대방5차 49평형 감정가 6억4천5백만원 최저가 (70%) 4억5천2백만원

아 파트 광주 서구 쌍촌동 푸르지오 47평형 감정가 7억2천1백만원 최저가 5억4백7십만원

아 파트 광주 남구 봉선동 더셀2단지 54평형 감정가 11억2천6백만원 최저가 7억8천8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